

기상사랑

www.kma.go.kr Vol.372

2012. June 6

풍경이 있는 날씨촌
바다와 도시를 품은 산, 유달산

날씨에세이
자외선에 대한 오해와 이해

포커스
1950년대 과거 기상예산을 찾아가는 탐험 길
전 세계에 단 하나 밖에 없는 것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6월의 나무에게

- 카프카 -

나무여, 나는 안다
그대가 묵묵히 한곳에 머물러 있어도
쉬지 않고 먼 길을 걸어왔음을

고단한 계절을 건너 와서
산들거리는 바람에 이마의 땀을 씻고
이제 발등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대도 어엿한 그늘을 갖게 되었다
산도 제 모습을 갖추고
둥지 틀고 나뭇가지를 나는 새들이며
습윤한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맑고 깨끗한 물소리는
종일토록 등줄기를 타고 오르며
저녁이 와도 별빛 머물다가
이파리마다 이슬을 내려놓으니
한창으로 푸름을 지켜 낸 청명은
아침이 오면 햇살 기다려
깃을 펴고 마중 길에 든다

나무여, 푸른 6월의 나무여



June 6



04



12



30

Contents

KMA Special Issue

- 나의 날씨이야기 초심으로 돌아갈 시간 · 02
- 풍경이 있는 날씨촌 바다와 도시를 품은 산, 유달산 · 04
- 정책클로즈업 세계 일류 기상서비스를 위한 도전과 성과의 기록 4 · 06
- 기획기사 떠오르는 한류스타 기상이 2편 · 08
- 날씨에세이 자외선에 대한 오해와 이해 · 10

KMA About

- 열린마당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중국방문기 · 12
- 선진예보 워크숍을 다녀와서 · 14
- ‘평생 한 번 가 볼 기회가 생길까’ 생각했던 울릉도와 독도 · 16
- 요즘 군대생활, 이렇습니다! · 18
- 밀양 아가씨, 광주 새댁 되다~!! · 20
- My little note from Ulaanbaatar · 22

KMA Hope

- 기상청사람들 붕어빵 가족 콘테스트 · 24
- 날씨만화 · 25
- 포커스 1950년대 과거 기상예산을 찾아가는 탐험 길 · 26
- 전 세계에 단 하나 밖에 없는 것 · 28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초심으로 돌아갈 시간



김지현 / YTN 과학기상팀 차장

"올여름 시작부터 무덥고 폭우 잦다."
올해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날씨 전망.
뭔가 강한 임팩트를 원하는 기자 입맛에 어느 정도 간은 맞춰진 듯하다.
철이 바뀔 때마다 섹시한 제목을 뽑아야 하는 고민을 한 지 어언 18년.
18번의 여름이 다 똑같지 않은 것이 이 직업의 매력인 것 같다.
그래도 서울 한복판 광화문이 잠긴 2010년과 2011년을 어찌 잊으리오.

사랑스런 두 아이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고 학교를 먼저 보낸 뒤 하이힐을 신고 지하철을 향해 뛰는 것으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출근 후 일단 카페인부터 충족해 정신을 맑게 한 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단신으로 업데이트하고 매시간 탐 뉴스로 전화연결. 오후에는 취재 후 그날의 포인트를 잡아 1분 반짜리 리포트. 다음 날 기상과 과학계 이슈 섭외에 이어 질문 원고 준비. 그리고 좀 한숨 돌릴만하면 절대 실 틈을 주지 않고 수시로 찾아오는 후배들 기사 검열!

일주일에 1~2번, 그것도 번갈아 나누어서 리포트하는 타 방송과 달리 YTN은 날씨를 무척 중요시하기에 매일 날씨 리포트는 기본이다. 그나마 요즘 과학계가 조금 잠잠해서 머리가 덜 아픈데 과학과 기상을 전담하는 입장에서 둘이 동시에 이슈가 터지면 이해 못하겠지만 정말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작년 7월에 개국한 YTN웹더 방송에서 5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어 취재하고 늦어도 오후 4시에 자리를 들어와 방송 준비를 해야만 해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다.

퇴근하면 또 다른 업무시작. 취재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도 기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동네 취재원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자리를 마련해 학교 소식과 내가 모르는 내 아이의 정보를 캐낸다. ㅎㅎ 일단 시작했으면 잘 해야 하는 승질(?)때문에 밤낮으로 바쁜 생활을 자초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 좋다. 내 타이틀이 많은 것도 좋고 그만큼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많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것도 좋고.

여름의 초입에서 올여름도 very hot하게 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멍멍한, 특징 없는 여름보다 폭염과 폭우가 빈번해 비록 바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하고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보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잘해야 본전인 날씨 업무를 하는 기상청. 예보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나날이 예보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관악산 기상레이더를 개방해 산 정상에서 일반인과의 소통이 가능한 쉼터를 만들고, 불모지였던 바다에 우뚝 선 '기상1호'로 해양기상의 환한 등불을 세우고, 예보나 특보가 나오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와 친절한 설명을 아끼지 않는 예보관님들. 비가 온다고 했지만 비구름조차 생기지 않는 날에는 문득 예보국장님과 과장님이 떠오르고... 대변인실과 더불어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어서 아침마다 생방송 전화 연결해주는 예보분석관실과 통보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언론과의 소통이 곧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는 간단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알기에 이러한 나눔이 서로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비록, 늘 환한 미소와 나긋한 음성으로 핵심 정보를 알려주셨던 진기범 국장님이 지금은 안계시지만, 이제는 옥황상제의 수석비서관으로서 천국에서 한반도를 지켜 주실 테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초심으로 돌아갈 시간..."

국장님 카카오 톡의 지워지지 않은 메시지처럼 18년 세월을 무기로 이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춰야겠다. 나도 초심으로 돌아가 올여름 신명나게, 작열하는 태양과 비바람과 태풍에 빠져 또 한 줄의 역사를 써야 하기에...



바다와 도시를 품은 산, 유달산



노미정 / 목포기상대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화려한 봄꽃을, 여름이면 짙은 녹음과 시원한 계곡을, 가을이면 온통 붉게 물든 단풍을, 겨울이면 눈이 부시도록 멋진 설경을 찾아 사람들은 사시사철 산을 향해 발걸음 한다. 우리나라는 기암괴석과 계곡들로 이루어진 멋지고 높은 산들이 많지만 목포에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유달산(儒達山)이 있다. 유달산은 높은 산의 위엄이나 요란한 계곡의 물소리는 없지만, 등산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간편한 차림만으로도 언제나 등반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한 편안한 산이다. 하지만 가벼이 보고 올라간다면 정상에서 숨이 차는 것에 당황하게 될지도 모른다. 산을 오르다보면 다도해와 목포시가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유달산은 결코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쉽 없이 올라가라 종용하지 않은 인자함이 있으며, 도시를 품에 안고 바다를 품에 안은 작지만 여유로운 넓은 산이다.

목포개항 110년 이후 목포와 함께 해온 유달산은 높이 228 m, 목포 8경의 하나로 목포의 자랑이자 상

징과도 같다. 노령산맥의 큰 줄기가 마지막으로 솟아나 다도해로 이어지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으로 예로부터 영혼이 거쳐 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이라 불리었다. 일등바위(유달산 정상), 이등바위, 대학루, 달성각, 유선각 등 5개의 정자와 달성사(達聖寺)가 있다.

동이 트기 전 새벽과 해가 질 무렵이면 목포시내에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데 바로 달성사의 종소리이다. 오전에는 28번, 오후에는 33번 종을 울리는데 오전에는 육계의 6천, 색계의 18천, 무색계 4천을 의미하고, 오후에는 지옥까지 소리가 퍼진다는 의미라 한다. 달성사에는 2000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목조 아미타상존불상(제228호), 목조 지장보살반가상(제229호)도 볼 수 있다

근대기상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노적봉

유달산 등구에 도착하면 왼쪽에 솟아있는 큰 바위 봉우리, 노적봉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적은 군사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봉우



유달산 전경



노적봉



구 목포기상대 청사(유달산앞)



시민의 종(옛 기상대 터)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비

리를 이영으로 덮어 멀리서 보면 군량미를 쌓아놓은 큰 노적처럼 보이게 했는데, 이를 본 왜적들은 저렇게 많은 군량을 쌓아두었으니 군사는 얼마나 많겠느냐며 지레 놀라 도망쳤다 한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 이 봉우리를 노적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유달산 노적봉은 설악산, 북한산의 노적봉보다 작고 아담하지만 나라가 위급할 때는 변장을 하여 적을 속였고, 요즘처럼 굴뚝 없는 산업이 활발히 진행될 때는 많은 이야깃거리를 전하며 목포시의 커다란 자랑거리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적봉은 목포기상대에도 의미가 깊은 곳으로 1929년부터 현재의 청사로 이전해 온 1997년까지 기상업무를 수행한 목포기상대가 있던 자리이다.

목포는 1904년 3월 25일 목포(현재 신안군 하의면 옥도)에 임시관측소를 설치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 방식의 기상업무가 시작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며, 1906년 4월에 목포 대의동 청사로 이전하고, 1929년 11월에 대의동에 청사를 신축하여 다시 이동하였는데 여기가 바로 현재 노적봉 바로 앞 「시민의 종」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가보면 옛 목포기상대 터임을 알리는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비도

볼 수 있다. 노적봉이 있는 동네도 옛 명칭인 목포측후소가 위치한 곳이어서 측후동이라 이름 지어져 있다. 노적봉에서 시가지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오면 1906년에 기상업무를 수행하였던 목포문화원(구 목포일본영사관)도 볼 수 있다.

멋진 경치 속으로... 일주도로 드라이브

기분전환의 방법으로 우선 꼽히게 되는 드라이브~! 유달산 일주도로는 노적봉에서 약 8 km를 달려 유달산을 끼고 목포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해안도로로 이어져 유달산과 다도해의 풍경을 동시에 감상하며 달릴 수 있다. 봄이면 일주도로에 노란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하여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가 되고, 노을 지는 저녁이 되면 바다 건너 고하도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등이 켜지고, 유달산 바위에도 경관 조명등이 켜져 환상적인 경치를 자아낸다. 신안비치호텔에서 일등바위에 이르는 등산로에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낙조대가 있는데 서해안의 비경을 가슴에 담아갈 수 있는 곳이다. 오색 빛으로 물든 목포를 한눈에 바라보며 열린 가슴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야간에 이 길을 꼭 달려보길...



일주도로



해안도로

세계 일류 기상서비스를 위한 도전과 성과의 기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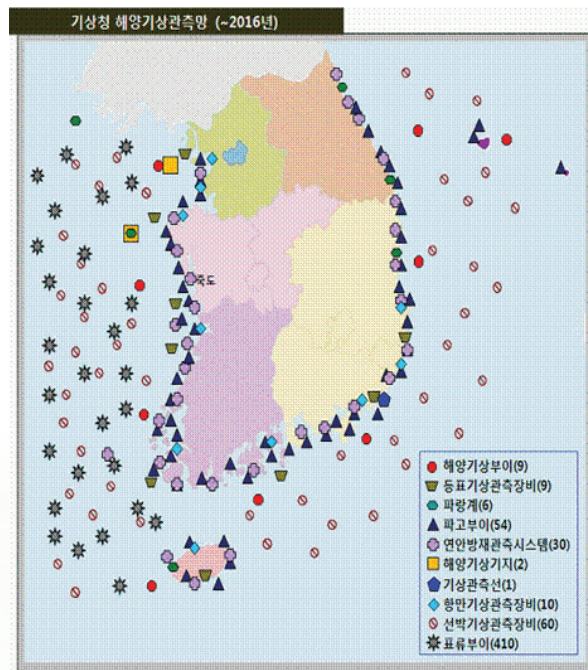
- 기상선진화추진단 3년을 돌아보며

기상선진화담당관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편서풍대에 위치하여 겨울철 저기압, 여름철 장마, 태풍 등 끊임없이 해양관련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등 위험기상현상 또한 해양 환경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며 최근 해양 기인성 재해가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바다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7년 기준 해운사업은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 중 하나이며, 수출입 물량의 약 98%를 해양을 통해 운송한다. 그러므로 해양에서 일어나는 위험기상을 피할 수 있다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해양기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의 여섯 번째 과제로 ‘해양기상 감시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호에서는 해양기상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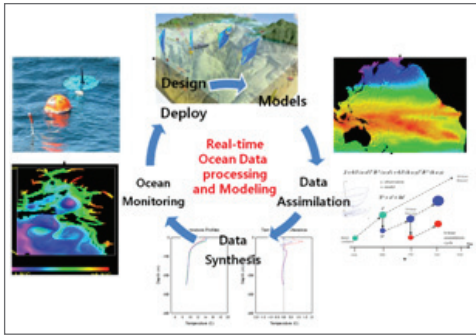
최적의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

해양기상 서비스와 해양재해 감시 기반은 정확한 해양기상 관측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해양기상 관측 장비는 설치에 제약이 크고,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기상 관측망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연안 중심으로 관측망이 운영되고 있어 먼 바다에서 접근하는 위험기상현상을 사전에 감시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은 해양경찰청 경비함, 국제여객선, 어업지도선, 관측지원 선박(VOS, Voluntary Observing Ships) 등 유관기관의 선박들을 활용하고, 위험기상이 발달하는 해역에 표류형 부이를 이용하여 관측공백지역의 해양기상 관측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2011년 56개 지점에서 2016년 591지점¹⁾으로 해양기상 관측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양기상 관측망)

1) 해양기상부이(9), 등표기상관측장비(9), 파랑계(6), 파고부이(54), 연안방재관측시스템(30), 해양기상기지(2), 기상관측선(1), 항만기상관측장비(10), 선박기상관측장비(60), 표류부이(410)를 보강 예정



〈한국형 현업 해양예측시스템〉



〈해양기상 관측망〉

현업 해양예측시스템 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온, 염분, 해류 등 급격한 해양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해양기상 정보를 생산하고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형 현업 해양예측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변동성 분석,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 등 다양한 기반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 지구 해양 관측자료 DB 구축,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 전처리 시스템, 관측과 예측자료의 품질관리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기와 해양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해수결빙, 저염수 확장, 난류와 한류의 변화 등에 대한 위험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현업 3차원 해양순환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형 현업 해양예측시스템(KOOFS: Korea Operational Ocean Forecast Syste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기상서비스 강화

원근해 선박, 물류수송자, 해양 종사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부터 원해까지 해무, 강수, 풍랑, 너울, 해일 등 위험 해양기상현상 정보와 지진해일, 유류 오염, 방사능 유출 등 재해 관련 예측정보 등 다양한 해양기상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흩어져 있는 해양기상 관련 관측 및 예측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해양기상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정보 제공 방법인 웹기반 해양기상

정보 제공 시스템은 접근과 정보 이해가 쉽도록 그래픽 캐스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어민, 소형 선박 등을 위하여 131 콜센터를 운영하고, 휴대폰 문자 및 웹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1년 말부터는 선박간 음성통신(SSB, Single Side Band)을 활용한 해양기상 음성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상정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지상파 기반 디지털 기상정보 방송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해양기상서비스 확대는 위험기상 예측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상의 위험을 방지하며, 어업, 수송, 해양공사, 관광, 레저, 국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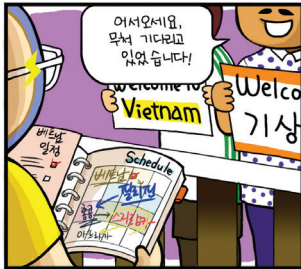
미래 해양기상 역량 확보를 위한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컨트롤 타워 구축

위에서 언급한 해양기상 업무 선진화를 위해서는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해양기상과 해양예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훈련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해양관측 정책 수립, 모델링 기술 개발, 예보 생산, 정보 전달 등의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해양기상 업무 컨트롤 타워를 두어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자원과 연결을 집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 분야의 선진화는 기상선진화 6번 과제의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해양기상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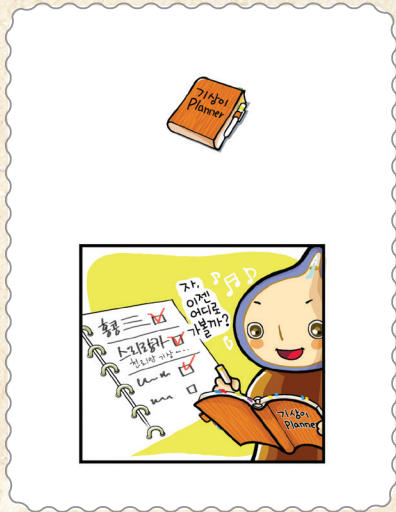


기상청



자, 이쪽으로..





기상청은 아시아 개도국 등
 우리의 기상기술이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자외선에 대한 오해와 이해



박현선 / 서울시보라매병원 피부과
서울의대 교수

흔히 자외선이라고 하면 피부에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피부가 적절히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야 콜레스테롤의 전구체로부터 비타민D가 합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타민D는 체내에 흡수된 칼슘을 빼와 치아에 축적시키는 작용을 한다. 물론 피부가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해롭다. 화상을 입거나 피부색이 진해지고 피부에 기미, 흑자와 같은 색소 병변이 늘어날 수 있다. 피부 노화와 피부암도 발생할 수 있다. 자외선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과도한 노출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외선이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의 한 종류다. 파장에 따라 A(320-400 nm), B(290-320 nm), C(200-290 nm)로 분류된다. 자외선 C는 파장이 가장 짧아 에너지가 크고 생물에 가장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행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에 의해 걸러지므로 지구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자외선 B는 주로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 현상, 화상 반응과 연관이 있으며 피부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자외선 A도 햇빛에 의한 노화나 피부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색소 반응과 연관되어 있다.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측정해보면 자외선 A가 B에 비해 100배가량 많지만, 동일한 광량에서 홍반을 초래하는 능력은 자외선 B가 A에 비해 1000배가량 높으므로 실제 홍반 발생에는 자외선 B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의 높이가 최대일 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B의 양을 수치로 환산한 자외선 지수에 따라 자외선 양을 낮음(1-2), 보통(3-5), 높음(6-7), 매우 높음(8-10), 위험(11이상)의 5단계로 분류한다.

자외선 지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므로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월부터 9월 사이에 자외선 양이 보통 이상으로 높아지고 8월에 최고치를 보인다. 또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최고 강도의 자외선이 집중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외선이 일으키는 피부 손상은 자외선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구분된다. 비교적 단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홍반, 화상, 색소 침착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으로 광노화, 피부암을 예방하고 피부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햇빛이 특히 강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양산,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



01. 기미
02. 흑자, 검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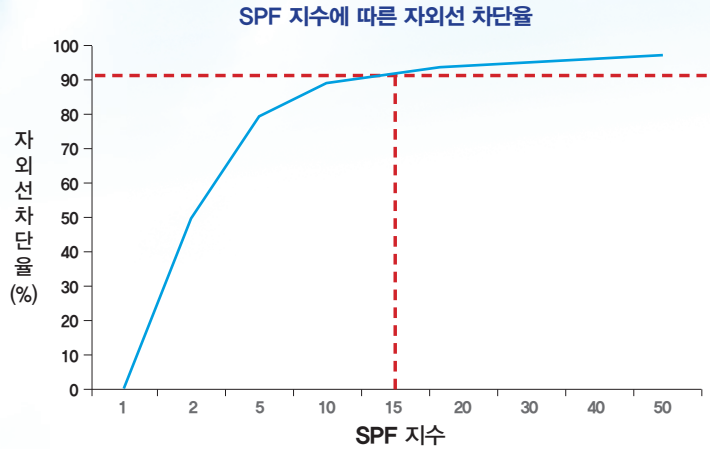
으로 자외선을 막아준다. 주로 자외선 B가 광노화와 피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외선 A는 피부에 보다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자외선 B에 의한 광노화와 피부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자외선 A와 B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바른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되어 있는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이다. 자외선 B 차단지수를 말하는데, SPF 15만 되어도 자외선 차단율이 93.3%에 달하고

30일 때는 96.6% 이므로 무조건 높은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자로 자외선 A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이고 +의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높아진다.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는 SPF 10-20/PA+,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 30 이상/PA++~+++,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SPF 50+/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붉은 반점, 부종 및 자극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한다.

구름이 낀 날에는 맑은 날에 비해 자외선 양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상청에서 자외선 양을 분석한 결과(지표에서 측정된 자외선 B 기준), 구름이 조금 낀 날의 자외선 양은 맑은 날과 거의 비슷하였고, 부분적으로 구름이 있을 때는 반사와 산란으로 오히려 다소 증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구름이 아주 많아 흐린 날, 강수가 있을 때는 자외선 양이 큰 폭으로 줄었다. 따라서 날씨에 따라 적절히 자외선 차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외선 차단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 발생률이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욱 자외선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백반증, 건선 등 과도한 자외선 노출에 의한 화상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못지않게 자외선 차단제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에는 땀이나 피지 분비로 피부가 오염되어 있고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이 남아있으므로 잘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에 자극을 가하거나 모공을 막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가볍게 적셔주고 클렌저를 이용하여 피부를 씻어낸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모공이 확장되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손상될 수 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후 마지막은 차가운 물로 피부를 두들겨주어 마무리하면 좋다.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파괴되어 노화가 촉진되고, 피부 세포가 손상되어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고,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켜 피부색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요즘같이 자외선이 강한 시기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중국방문기



윤건희 / 천안기상대



먼저, <난쟁이>는 <난 기상쟁이>의 줄임말임을 밝혀둔다. 대전지방기상청 대표단 7인이 백설공주(대전지방기상청장)와 우리는 기상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중국 천진시기상국을 방문하여 상호 기상협력관계를 넓히면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돌아온 내용이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10여 년 동안 한·중 간에 쌓아온 우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으며,

양국 간의 신뢰와 믿음은 향후 기상협력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의 성과는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우호증진 등 국제협력분야의 성공적인 외교사례로 손꼽을 수 있겠다. 대전청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극진한 환영을 받고 기상협력관계를 넓히면서 소기의 성과를 갖고 귀국한 내용을 지면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에서 <백설공주>는 대전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이 청장으로 취임해서 중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환영도 백설공주처럼 특별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의 방문기간 동안 천진시기상국 및 주변시설을 시찰하고 세미나, 기술협력 등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지는 대륙을 자동차로 이동하고 오후에는 기상관서를 방문하여 시설견학과 기술협력,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취침 때까지 개인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행 일정이 다소 타이트했다. 또한, 저녁시간에는 그들이 베풀어준 환영만찬에 하루의 피로감을 잊고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여행하는 동안 중국기상국 간부들의 한결같은 성실한 안내와 배려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광활한 대륙과 경제 발전상

중국의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면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정이 좋은 날은 사방으로 50 km 이상 어떤 장애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대륙임을 느낄 수 있었다. 여행기간에 중국경제의 발전상을 접할 수 있었지만 도심지 빈민가의 낡은 주택과 주민들의 복장은 한국의 60년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국기업이 건설한 고속철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황



사로 유명한 북경시의 인구가 서울보다 1.5배정도 많은 규모지만 도시면적은 훨씬 크게 느껴졌는데, 한국보다는 초고층 건물수가 적고 건물사이의 이격거리 또한 여유롭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동차로 도시를 벗어나는데 2~3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대전청대표단은 다음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중국 문화유적 체험기

입국 첫 날 밤에는 해하강 유역에서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기원하고자 희망의 풍선을 하늘에 띄웠다. 또한, 중국관광에서 누구나 한번은 방문해야한다는 만리장성의 규모도 대단했지만, 허베이 보정시 삼의궁을 방문한 건 특별한 체험이었다. 이곳은 <삼국지> 최초의 발원지로서 유비, 관우, 장비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정문 입구부터 영어와 함께 서투른 한국어 안내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삼국지 인물 중 유비를 가장 덕망있는 인물로 생각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관우를 가장 덕망이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충성심과 절개는 후세의 중국인들에게 귀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인의 기상서비스 마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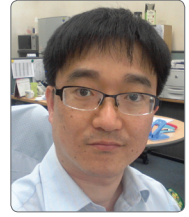
민주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시대에도 중국기상국 간부들의 사상은 중국공산당 창시자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권력은 인민이 부여한 것이기에 인민을 위해 살라”는 모택동의 어록을 소개하는 간부를 보면서 투철한 사상과 사명감을 엿볼 수 있었다. 일선기상대 사무실의 근무편성표를 접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에서 간부들의 하급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도 쾌적한 사무실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벤치마킹 필요성

중국의 기상기술 수준과 인프라 구성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투자의 확대는 수년 내에 기상강국으로 발돋움 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기상관련 예산집행은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방송국 운영 등 자체 수입원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만 중국은 예산집행자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기상관서의 사무실 환경, 기상장비, 화상시스템 등은 이미 한국의 수준과 대등했으며, 직원 수 30인~50인과 5~6개의 전담부서 운영은 한국의 일선기상관서와 비교가 되었다.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인공강우 기술수준을 발전시켰으며, 대표단이 방문했던 빈해신구기상국은 천진시기상국 소속기관 중 인공강우로 유명하며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선진예보 워크숍을 다녀와서



정세훈 / 예보정책과

예보기술팀에서 처음 접했던 ‘선진예보시스템’은 나에게 작년 초까지 실체가 보이지 않는 막연함으로 인해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끊임없이 들게 했던 사역(思釋 : 생각하고 찾아서 구함)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작년 말 혹은 올해 현업화 시점에 이른 후부터는 ‘선진예보시스템’은 기상청의 예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중요한 선진예보시스템과 관련한 ‘선진예보 및 동네예보 선진화 워크숍’이 지난 5월 24~26일 광주지방기상청 소속기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구례에서 개최되었다.

전남 구례는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 3대봉의 하나인 노고단이 있는 지역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대표사찰의 하나인 화엄사와 섬진강 그리고 산수유가 유명한 고장이다. 그러나 나에게 구례는 이러한 유명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30여 년간 생활해온 여수와 순천에 접해 있어서 매우 친근한 곳이고, 20대에 매년 지리산 산행을 자주했던 의미 있는 추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지리산과 이를 끼고 흐르는 섬진강으로 대표되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며 우리 역사와 문화유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나만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기까지 한 구례에서 워크숍이 개최되는 것이다. 장소는 KT연수원!!

24일 아침, 아직도 구례에 대한 선명한 나만의 추억을 상기하며 설레는 맘으로 서울역에서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익산역에서 무궁화 열차로 환승해 구례역까지 총 3시간 20여분의 기차여행! 오랜만에 타보는 무궁화 열차는 KTX 선로를 따라 달려서인지 예전처럼 ‘덜컹~! 덜컹!’하는 기차 특유의 울림은 없었으나, 창밖의 풍경은 예전과 같아, 새롭게 생겨난 또 다른 구





식의 생소함도 나를 정겨웠다. 지리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KT연수원은 크기나 규모가 아담하였으나, 매우 운치 있는 장소의 선정과 함께 잘 꾸며진 조경 등으로 소규모의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가족 단위의 휴식을 취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이었다. 내부직원과 외부기관 혹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워크숍이 많은 기상청도 미래에는 이러한 중·소규모의 연수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었다. 올해는 예보기술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선진예보시스템’ 중 일부 ‘현업화’가 진행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은 올해 상반기 현업화 예정인 선진예보시스템의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예보의 선진화에 관해 토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역시나 많은 직원들이 주요 현업화 대상인 통합기상분석시스템과 특보시스템, 맞춤형 통보서비스 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였다. 맞춤형 통보서비스의 경우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현업화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한 기관에 많은 사람들을 등록할 때, 개인을 등록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해결 요구 등이 있었고, 동네예보 시스템 개선에 관해서도 현재 불합리한 관리 지점의 개선에 대한 의견들과 과도한 문자 발송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 향후 기상청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확대 운영되고 있는 지역 기상담당관제의 활동 내용에 관한 공유는 향후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방청이나 기상대의 작지만 큰 의견들, 예를 들어, 지역의 공식 행사시 기상청 직원이 직접 참여해 관련 기관장과 만남의 계기를 만드는 소소한 노하우부터 지역 기상담당관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련 예산의 지원 문제 혹은 직급 체계의 문제 등 거시적인 측면의 노하우나 문제점 등이 그것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노하우는 위험기상이 발생해 진행되는 중에 약간의 소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해 유관기관의 장이나 담당자가 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수요자들의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위험기상에 대한 경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이에 집중하였던 우리 기상청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유관기관의 대응 수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해 유관기관과 좋은 협력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기상청의 대외 이미지 향상은 덤일 것이다.

광주청 뿐만 아니라, 전국 소속기관에서 2주에 걸쳐 진행된 ‘선진예보 및 동네예보 선진화 워크숍’이 좋은 결실을 맺어 기상청의 예보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고, 기상청 내부적인 소통에도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고생한 분들 뿐만 아니라, 기상청 예보업무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의 노고 또한 느껴지기도 했다. 더불어, 워크숍에 적극 힘써주신 광주지방기상청장님을 비롯한 예보과, 기상대 및 예보기술팀 직원 모두와 교통편이 불편한 구례에서 기꺼이 차량을 지원해주신 동료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상청 예보선진화를 위해 파이팅!

‘평생 한 번 가 볼 기회가 생길까’ 생각했던 울릉도와 독도



김미연 / 매일경제 기자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 착공식에 앞서 프레스투어 계획이 잡히면서 그 기회가 생겼다. 출발 전부터 가슴이 설렸다. 그러나 막상 최동단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7일 울릉도에 도착하기까지 새벽에 서울에서 동해 묵호항까지 버스로 4시간, 묵호항에서 울릉도까지 배타고 4시간, 약 8시간가량이 걸렸다. 울릉도기상대가 위치한 곳도 산꼭대기. 또다시 험난한 산새를 차로 약 30분가량 타고 올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가파른 산꼭대기 위 울릉도기상대에는 기존 기상대 옆에 기후변화감시소를 짓기 위한 평평한 부지가 비좁게 마련돼 있었다. 앞으로 이곳에 들어설 감시소가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온실가스 등을 직접 측정하며 한반도 환경을 감시해주는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 기후변화감시소를 2013년까지 짓기 위해서 사업비 42억 원이 투입되며 연구동(749.60㎡)과 연구지원동(362.63㎡)이 신축될 예정이다.

본래 울릉도기상대는 산성비 관측 등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울릉도·독도에서의 기후변화감시측정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기본계획” 수립하고 착공 계획에 돌입한 것이다. 아직은 울릉도기상대에서 일부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자외선 정도만을 측정하고 이 자료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로 전달돼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감시소가 완공되면 이온성분, 산성도까지 관측 요소를 확장하고 관측된 자료들도 직접 울릉도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육지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가본 경험이 없는 이 외딴 섬에서 우리나라 기후를 감시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8일 아침에는 독도로 향했다. 날씨 변동이 잦아 배가 쉽게 뜰 수 없기에 독도는 흔히 하늘이 허락해야만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한다. 기상청 프레스투어 팀이 출발할 때에도 해무가 자욱이 끼어 배가 뜰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 ‘하늘의 허락’을 받고 배는 출항했다. 독도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맨 꼭대기를 쳐다봤다. 갈매기들 사이로 우뚝이 홀로 서 있는 기후변화감시 무인관측소를 볼 수 있었다. 무인관측소는 지난해 11월 세워졌다. 관측소 안에는 무인 작동이 가능한 공동분광검식기(CRDS) 장비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독도에서 관측된

자료도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로 전달돼 분석된다. 하지만 2013년에 울릉도에 기후변화감시소가 완공되면 울릉도 자체적 관측 자료뿐 아니라 독도에서 측정된 자료까지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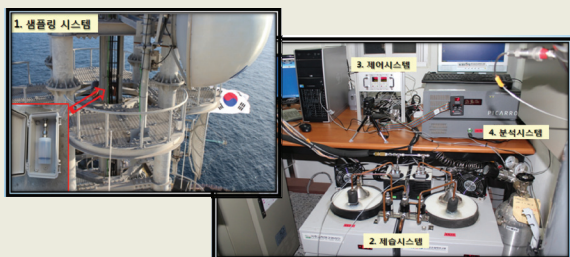
날씨가 좋지 않아 직접 올라가보는 일은 포기했다. 직접 올라가려면 독도로 오는 다음 배를 타야하는데 울릉도에서 이 배가 출항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예감이 맞았다. 자옥이 낀 해무와 높은 파고로 인해 그날 오후부터는 배가 출항하지 않았다. 무인관측소를 보러 올라갔더라면 독도에 꼼짝없이 갇혔으리라. 우리는 무사히 울릉도로 돌아왔고, 투어 일정도 예정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시소가 완공되면 한반도의 기후변화감시소 삼각대가 형성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 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 회원으로서 1996년 서쪽 끝인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처음 기후변화감시소를 세웠고 이후 2008년 최남단 격인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에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쪽에는 이 감시소가 구축이 안 된 상태로 한반도 전반적 기후변화감시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가 설립되면 한반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총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서해 안면도, 남해 제주 고산, 동해 울릉도·독도 감시소가 각 지역을 대표하면서 기후변화감시소 체계가 완성된다. 순수하게 한반도에서 배출되는 공기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체계적인 감시는 앞으로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협상에서 객관적인 지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독도'가 아닐까. 독도에 설치된 온실가스 원격관측시스템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시키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감시소는 한 나라의 국경 중 청정한 지역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독도 기후변화감시 무인관측소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또 한 번의 험난한 여정을 뚫고 서울로 돌아왔다. 도착한 후 몸은 녹초가 돼 있었다. 다시 가보라고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서는 접할 수 없는 맑은 공기, 자연환경이 이내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 더구나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쾌쾌한 서울 공기를 접하면서 마음도 든든해진다.

〈 독도 온실가스 원격관측시스템 〉

1. 공기 채취 : 15m 높이에서 공기 흡입
2. 제 습 : 냉각 방식으로 흡입된 공기(대기 시료)의 수분 제거
3. 시료량 조절 : 대기 시료와 농도를 알고 있는 가스(표준가스)의 양을 조절하여 장비로 보냄.
4. 분 석 : 대기 시료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농도 분석



요즘 군대생활, 이렇습니다!

- 아들 군대 보내기



정용담 / 기후정책과

나는 요즘 군인들을 보면 전혀 낯설지 않고 친숙하고 반갑다. 작년 10월에 군대에 간 큰아들 때문이다. 큰아들은 키가 183 cm에 몸무게가 108 kg이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며 우리 가족은 ‘녀석이 군대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반, ‘잘 참고 견뎌서 살 좀 빼고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반이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20kg 정도를 감량하여 현재 87kg가 되었다.

80년대 이전에 군에 다녀오신 분들 대부분은 군대 얘기로 낯밤을 새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1위는 여전히 군대이야기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 군대는 변화도 많이 변했다. 다들 “요즘 군대생활이 뭐 군대생활이냐?”라고 말할 정도다. “요즘 군대가 어떻게, 얼마나 변했느냐고요?” 이제부터 나는 아들의 군 입대부터 4번째 면회를 다녀올 때까지의 과정을 적어보려고 한다.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함이다.



자대 면회(12.2) 춘천 소양강 뚝길에서



자대 면회(12.5) 춘천 둘러길에서



농산훈련소 입소하면서(11.10)

훈련소 입대 전 108kg

음식을 하였으나 입영 전 몸이 작은 탓에 음식을 조리 받을 수 없음

- ① 입소 1개월 전부터 부모형제 친척 분들께 인사(이때부터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님)
- ② 입소 1주일 전부터 모든 지인들 메모지에 연락처 필히 기재(휴대폰 정지 대비)
- ③ 입소 1~2일 전에는 간편복, 메모지, 편지지, 우표, 펜, 비상약 준비(용돈 필요 없음)
- ④ 훈련소 입대 시는 부모와 친구가 동행하는 것이 좋음

훈련소 생활·면회 108kg→98kg

무려 10kg이 감량된 모습으로 나타남

1. 입소식(연병장 집합)까지 마음이 아프지만 힘차게 보냄(이때 Hugging은 필수)
※ 입소식 전에 충분한 기념사진 촬영, 입소식 종료 후 집으로 복귀
2. 가정통신문 수령(6주차 훈련 입소 일정, 연대-중대-소대-번호)
3. 훈련소 홈페이지 접속 가능(훈련병 사진 볼 수 있음, 게시판에 소통 가능)
4. 훈련 수료식(금요일 09:00~18:00) 즈음에 초청장이 오음(유의사항 포함)
※ 면회 시 음식은 제철음식으로 준비할 것(조개, 꽃게, 회, 과일 등)
※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이므로 편지로 힘을 북돋우는 소식을 전함

후반기 교육·면회 98kg→90kg

총 2kg 감량,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면회를 보아줌

1. 후반기 교육은 사회에서도 주특기 병과로 가기 위한 좋은 기회
※ 훈련소에서 적성검사 시 하고 싶은 병과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올인(Test 등)
2. 2주차부터 면회가 가능(09:00~17:00)함에 따라 마지막 주를 택함(자대 배치 확정)
3. 면회 시 음식은 제철음식으로 준비함(훈련소 면회 시와 동일)

자대 면회 90kg→87kg

1. 외박(1박 2일, 09시~익일 20시경)이 허용됨에 따라 1~2주에는 예약 필수
2. 신분증 제시하고 자대 면회 신청
3. 1박은 펜션보다는 주방이 있는 모텔이 훨씬 효율적임(모텔이 도심지에 위치해있기 때문)
※ 생각보다 많은 돈이 소비됨(절약 요망)
4. 외박 외출 시에는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노래방, 영화관, PC방 등에서 스트레스 해소
5. 자유로운 쇼핑하기(자대 생활용품인 화장품, 세제용품, 필기구, 책 등을 구입)
6.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복귀할 수 있도록 배웅



이렇게 해서 아들은 우리 가족이 한번 면회할 때마다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을 실현하고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래도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마음은 누구나 늘 한결같은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한두 차례 더 면회를 갈 계획이다. 이병~일병 기간에 2~3회, 상병~병장 기간에 1~2회. 그때는 아들이 더 어른스럽고 남자다운 모습이 되어 있겠지?

곧 군대에 들어갈 아들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 마지막 팁 하나. 자대 배치를 받으면 군행정반과 소대장의 비상연락처를 입수해야 한다. 급한 연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요즘 군대는 적정한 월급이 나오고 의식주도 풍족하다. 군대에서 매주 전화가 오기도 한다. 구타도 옛이야기이니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우리 시절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군대 참 많이 좋아졌다!

밀양 아가씨, 광주 새댁 되다~!! 행복의 길로 오세요~



황인경 / 레이더분석과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달차 풋풋한 새댁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저의 좌충우돌 결혼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부부사이가 안 좋으시거나, 연애세포가 말라가는 분들은 여기서 그만 읽으셔
도 됩니다~*

이야기는 작년 여름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첫 눈에
아~~웃!!!이었다. 아무리 돌려봐도 꿈꾸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보다 마른 것
같은 작은 체구가 일단 탈락. 내가 작기 때문에 큰 남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이제야 시집을 간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이 남자, 첫 만남부터 적
극적으로 다가왔다. 경기도에서 매번 동작구에 있는 회사 앞으로 만나러 오는 정성을
보였다. 이전 같으면 다시는 안 만났을텐데 나도 싫지 않았는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연
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경상도 남자들만 만났던 나는(저는 고향이 밀양입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 남
편을 만나서 그 부드러움에 폭 빠졌나 보다. 자상하고 매너도 좋고, 그렇게 반년이 지
나고 남편의 100번 넘는 도끼질에 나는 그만 결혼을 승낙을 해버렸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었다. 핑크빛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집
안 최고 어른이신 작은 할머니께서는 “치아라 마” 라고 한마디 하셨다. 남편의 고향이
탐탐치 않으셨나 보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제발 결혼 좀 하라고 걱정하시던 아버지
도 말을 바꾸셨다. 한 달 내내 주말마다 밀양으로 가서 부모님께 얼굴도장 찍고, 그래도
두 사람이 좋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한발 물러나 주셔서,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다.

위험한 상견례가 시작된 것이다. 양가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어색한 첫 만
남을 가졌다. 남편은 잔뜩 긴장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결혼 날짜는 의견일치였
지만 장소가 문제였다. 우리 지역에서는 여자 쪽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풍습이 있어서
당연히 밀양에서 식을 올리자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시댁 어르신들은 집안 첫 경사라
서 광주에서 하시고 싶다고 하시며 양해를 구하시고 적막만 흘렸다. 평소에는 싫은 소
리도 잘 안하시는 아버지께서 완강하게 의견을 굽히지 않으셔서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
다. 집에서 셋째 딸인 나는 언니들이 다 시집을 갔기 때문에 장남인 오빠 쪽에서 결혼식
을 하는 것을 이해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으셨나보다. 미리 어머니는 설득을 했던





지라, 어머니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셔서 광주로 결정을 하였다. 아버지께서 속상하신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이렇게 결혼준비를 시작했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니 모든 게 일사천리였다. 결혼 준비는 거의 한 달을 했는데 집에서 혼수까지, 의견 충돌 없이 잘 진행되었다. 남편이 거의 일을 제쳐두고 준비하러 다녔지만.. 남편이 몇 가지 안을 들고 오면 나는 선택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부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ㅎㅎ

드디어 결혼식 날, 광주까지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일일이 인사드리느라 신부가 너무 시끄럽다고 혼도 나고, 형부와 남동생이 함께 부른 축가는 의도적으로 못 부른건지 원래 실력인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고, 남편은 끝을 알 수 없는 노래로 하객들을 웃음바다로 빠뜨렸다. 이렇게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 했다. 그런데 폐백실로 향하던 나는 그만 이 결혼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성혼선언문에 “네”라고 대답했고, 우인들 사진으로 증거사진까지 다 남은 이 마당에...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폐백이었다. 당연히 폐백실에서 양가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역마다 결혼 풍습이 달랐나 보다. 시댁 어른들께만 인사를 드린다고 친정 식구들은 그냥 식사하시러 가셨다는 것이었다. 드레스를 갈아입으러 룸에 들어간 순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면서, 서운함을 감출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지역감정을 느낄 뻔 했다. 하지만 이미 친정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셔서, 서운함을 감추고 모든 식을 마쳤다. 결혼식 당일엔 너무 서운하기도하고, 먼 길 돌아가셔야 하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막내 사위는 볼수록 좋아” 하시는 부모님 말씀에, 정말 결혼 잘 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으로 맞이한 어버이날에는 먼저 장모님 뵈러 가고 싶다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시댁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 덕에 나는 시댁에서 안방 차지하는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었고, 친정에는 용돈을 두둑이 챙겨드리고 사위 보약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행복한 신혼은 쪽 ~ 이어 질 것이다.^^

지역 뿐 아니라, 30년을 서로 다르게 살았으니 이것저것 부딪히는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지만, 지금처럼 서로 위하다보면 깨소금 냄새는 끊이지 않겠지요?

“남편이 결혼해 달라고~ 달라고~ 하고 졸라서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이 좋은 결혼을 왜 이제야 했을까 후회하는 새댁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혼자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 다 아시지요??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 한 마디 해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언니들~ 눈 낮추시고 어서 행복의 길로 들어오세요~^^*)



My little note from Ulaanbaatar



최은진 / 관측정책과

4월 30일부터 5일간 제5차 한·몽 기상협력회의가 몽골에서 있었다. 회의 결과로 황사연구 수행, 수치모델 기술 개선을 위한 지원, 풍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공동연구, 그리고 몽골의 항공기상센터 현대화업무 지원에 대해 합의하였다. 회의 참석을 통해 지난 10년간 양측의 교류와 협력의 산물을 보는 것도 뿌듯했지만 돌아와 생각하니, 사회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점차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몽골의 실생활과 많은 변화를 실감하는 자리여서 더욱 인상적이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는 전자제품에서 음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한국 제품이 눈에 띄었다. 거리를 질주하는 한국산 자동차들을 볼 적에는 불과 30여 년 전 외국인 눈에 비친 우리 모습도 이와 같았으리라 생각한다.

현대화 바람이 불면서 몽골은 사회 여러 방면에서 다른 세계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 이후 양국의 하늘 길¹⁾이 열리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엔 몽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늘 길이 열리자 발 빠른 민간 기업들이 몽골로 진출해 우리 경제와 문화가 차츰 그곳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이제 몽골은 멀리 떨어진 내륙 국가가 아닌 우리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 가까운 나라라는 느낌이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하며, 우리 산업이 진출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강점인 '속도전'과 '서비스 정신'이 아닐까 한다. 속도에 민감한 한국 제품들은 제품 완성도(?) 측면에서는 다소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전반적인 기술의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대략 80% 정도가 아닐까? 하지만, 고객과 사용자의 의견을 바로 적용해 출시된 제품의 허점과 위험 요소를 빨리 잡아내는 것도 우리 문화와 기술만의 독특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한국의 디테일한 서비스와 속도전을 과연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할 수 있을까? 경쟁력은 있지만 제품 하나만으로 뭔가 부족한 시대,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답은 바로 서비스에 있다고 본다. 특히나 적당한 AS가 필요한 제품에 우리의 세심한 배

1) 한진그룹에서 보잉727기를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시작된 항공분야 협력; 대한항공은 몽골 하늘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비용감소 효과, 몽골은 영공통과 수수료를 통해 외환보유에 큰 보탬이 됨

려와 정성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외국 소비자 역시 우리 제품을 깊이 신뢰할 것은 분명하다.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사물에 의미와 감동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통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교류이며 접촉이다. 얼핏 보면 기업 마케팅에만 적용될 법한 이야기 같지만 잘 살펴보면 공적인 분야에서도 이미 우리는 이러한 경쟁력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

그 예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기상청의 국제협력 활동이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엄청난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지원은 아니지만, 나름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세심한 배려로 기술 지원하고 그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의 노력을 겪어 본 이라면 감탄하지 않을 이가 있을까? 이를 증명하듯, 일선에서 개도국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의 말을 빌리면, 수혜국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고가장비 기증이나 자본 투입이 아니란다. 비록 규모면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한 개도국 시스템의 발전과 효과적인 관리 인력 양성에 더욱 감사를 느낀다고 한다. 몽골청의 여러 직원을 만나면서 이러한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득한 옛날, 우리와는 한때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로 엮인 나라, 몽골.

수세기가 지난 지금 그 곳에 한류 바람이 불어 구석구석 우리가 만든 제품과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일이다. 기상 분야의 협력도 이러한 큰 줄기에서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한류를 타고 우리의 우수한 기상기술이 전파되고 이로 인해 현지에서 다시 더 강한 한류를 불러 올 수 있는 지속적인 되먹임 현상에 우리의 기술지원도 제 몫을 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한·몽 협력이 두 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교류와 상생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 힘차게 *톡-토이!!



몽골기상청 수석대표 직원들과 함께



몽골기상청 현판에서

* 톡-토이 : 건배를 뜻하는 몽골어



붕어빵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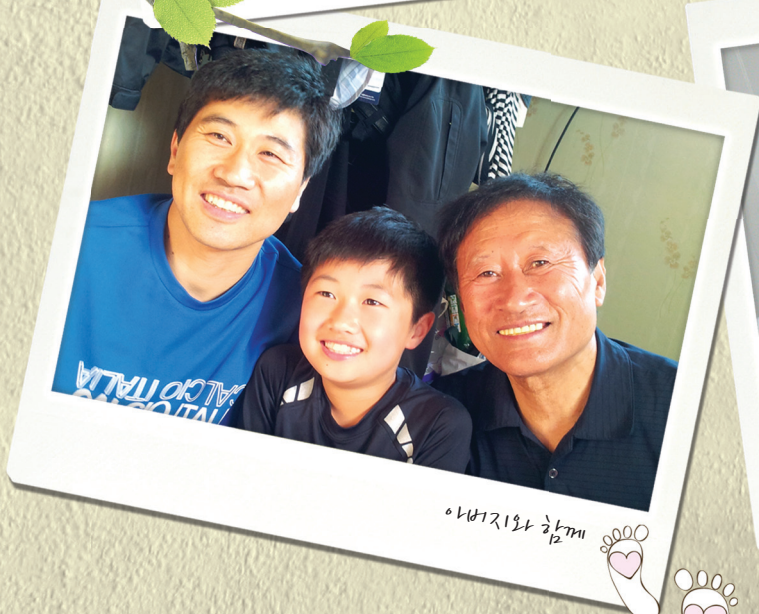
콘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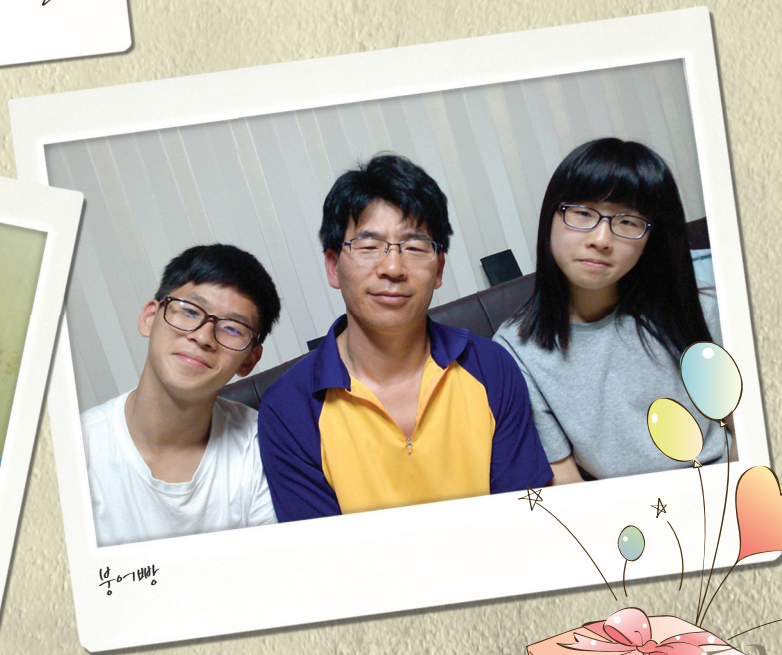
고궁 내들이



고모 할머니와 손자



아버지와 함께
이바지와 함께



붕어빵
생일이





1950년대 과거

기상예산을 찾아가는 탐험 길



이종하 /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과장

기상청이 외국으로부터 유치한 자금내역에 대한 자료조사와 보고서 작성 과정 중에 우리 직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듯한 내용이 있어, 평소 잘 쓰지 않는 글을 쓰게 되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듯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과거 기상예산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과거 자료를 찾는 길은 쉽지 않았다. 사무실과 서고를 뒤적이고 인터넷 서핑도 해보았지만, 동분서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도움 될 자료는 눈에 띄지 않았다. 청내 자료실에도 가보았다. 기상연감은 첫 발간이 88년이라 그 이전자료는 없었다. 그나마 창간호에 외국에서 차관을 받은 내역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었다. 『근대기상 100년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춰볼 필요가 있었다. 『근대기상 100년사』는 전·현직 기상인이 동원되어 발간한 것이다. 자료수집부터 편집, 세부내용 작성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도처에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기상 100년사』에는 196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록만 남아있다. 빠진 부분에 대한 자료 탐색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옛날 관보를 찾아보았다. 쉽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에서 전자관보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일단 관보 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수차례 확인한 끝에 50년부터 64년까지 예산 관련 파일을 받을 수 있었다. 자료를 받아 출력을 하면서 기상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다행히 정부예산이 있었고, 그 가운데 기상예산도 3~4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시름 놓였다. 드디어 보물을 찾아냈구나, 설레는 마음도 들었다.

관보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서 새로운 정보와 사업 등의 소식을 전하고 공람하기 위해 날마다 발행하던 정부소식지였다. 지금 보면 생소하지만, 종이관보 시절엔 거의 전 직원이 열람 사인을 하고 중요사항을 읽었다. 최근에는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로 다 바뀌어서 필요한

경우만 열람하게 되어, 직접 필요한 사람 이외에는 전자관보를 볼 일이 적어졌다. 1950년대 관보에서 흥미로운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950년 4월 29일자(토) 관보에 기록된 것을 예로 들어볼까 한다. 기상예산 증폭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경제적 주요 변동 내용도 간단하게 언급해 보려고 한다.

첫째, 당시 날짜는 ‘서기 1950. 4. 29’가 아니라 ‘단기 4283년 4월 29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한문이 90% 이상이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둘째, 정부 주요부처에는 대통령실, 부통령실, 국회, 대법원, 국무총리실, 심계원,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보건부, 교통부, 체신부가 있었다. 기상청의 최초 명칭은 ‘국립중앙관상대’로 문교부 소속이었다. 이후 교통부, 과학기술(처)부, 환경부로 소속이 이관·변경되었다. 기관의 명칭은 중앙관상대에서 중앙기상대로, 다시 기상청으로 변화를 거듭하였다.

셋째, 195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5,585백만 원이었고 기상예산은 178백만 원이었다. 이 당시 예산액이 컸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전쟁에 휘말려 물건이 공출되는 등 인플레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상예산에도 당시 경제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기상예산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UP-DOWN-

UP의 변화를 보였다. 1차, 2차, 3차 통화조치와 화폐개혁, 그리고 6.25 전쟁에 따라 감액 등 변동 폭이 컸다.

1차 통화조치(50.8)는 6.25 전쟁 발발 직후 피침지역에서 불법 남발된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고 경제 교란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정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과 교환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차 통화조치(53.2)는 막대한 전비 지출에 따른 통화 증발과 물가상승으로 시중 과잉 구매력 흡수 등을 목적으로, 3차 통화조치(62.6)는 재정 및 금융 면의 확장정책으로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하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다섯째, 기상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해는 전년 대비 247% 증가율 보인 52년이었다. 당시는 6.25 전쟁 중이라 막대한 전비 지출과 물가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섯째, 예산의 절대액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1964년으로, 45백만 원(전쟁 중 예산편성분 제외)에 불과했다. 이때는 「대통령 긴급명령」과 「긴급통화 조치법」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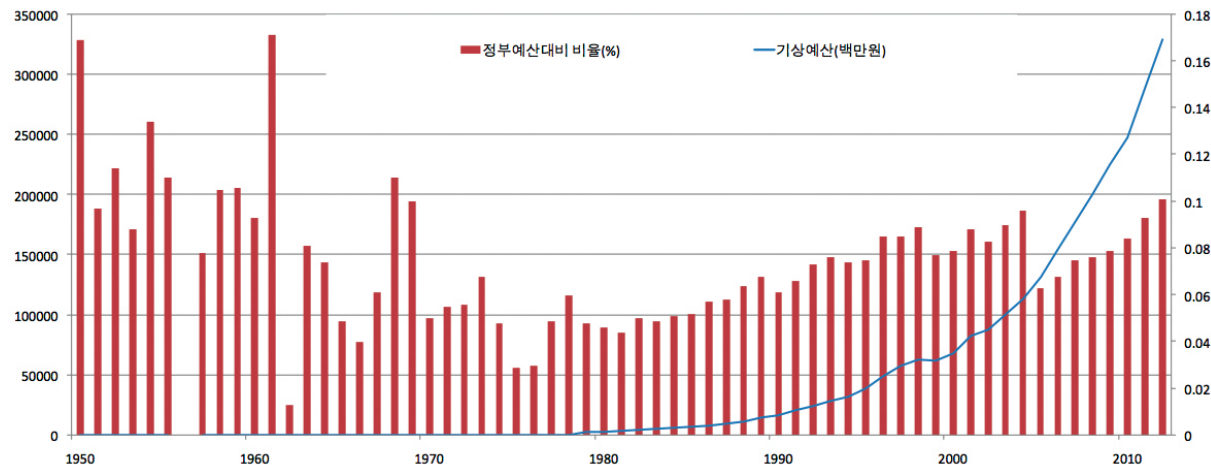
2, 3차 통화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화폐 호칭이 ‘원(圓)’에서 ‘환(圓)’으로, 다시 ‘환’에서 ‘원’으로 바뀌었다. 또한 화폐가치도 100분의 1, 10분의 1로 절하되면서 기상예산의 절대액수도 대폭 떨어졌다. 이후 서서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기상예산도 함께 증액되었다.

일곱째, 정부예산 대비 기상예산의 비율이 가장 적었던 해는 1975년으로 0.029%였다. 이후 계속 점증하다가 2012년도에는 0.101%까지 증가해서 기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기상재해 발생이 빈번해져서 기상예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기상예산이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듯이, 현재의 기상예산은 오늘날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기상청의 역할을 말해준다. 국민과 재해대책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은 물론 세계기상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과의 소통으로 국내 기상산업을 내실화하고 보다 활발한 국제협력을 이루어 기상영토를 넓혀 나가는 일, 2012년 현재 기상예산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기상청 예산변천 현황(1950년 ~ 2012년)

회계년도	정부예산	기상예산	정부예산대비비율(%)	비고
1950('50.4~'51.3)	105,585	178	0.169	화폐단위(원)
1951('51.4~'52.3)	333,100	322	0.097	"
1952('51.4~'53.3)	981,933	1,117	0.114	"
1953('53.4~'54.3)	28,421	25	0.088	*전란수습비 정부 예산 57,728
중 략				
1963	64,561	52	0.081	(원)
1964	60,834	45	0.074	(원)
1965	93,900	46	0.049	"
중 략				
1974	1,018,872	486	0.048	
1975	1,550,214	452	0.029	
2011	309,100,000	288,876	0.093	
2012	325,400,000	328,959	0.101	



전 세계에 단 하나 밖에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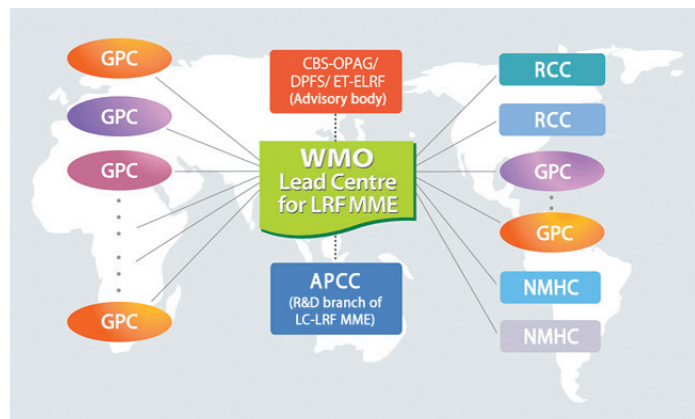
– 기상청의 장기에보선도센터



정준석 / 기후예측과장

전 세계를 대표해서 장기에보를 제공하는 예측센터가 기상청에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WMO-LC LRFMME(WMO Lead Centre for Long Range Forecast Multi Model Ensemble)'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말로 풀면 '장기에보선도센터'다.

전 지구 규모의 장기에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계산능력과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지구 장기에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센터(GPC, Global Producing Centres for Long Range Forecasts)도 전 세계에서 단 12곳 밖에 없다.



기상청의 장기에보선도센터는 이 12개 센터 중 하나이다. 동시에 다른 센터들의 자료를 통합하여 전 세계에 표준화된 기후예측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중모델앙상블(MME, Multi-Model Ensemble) 기법을 이용해 전 세계를 통합한 장기에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MO 장기에보선도센터가 있기 전에는 각각의 GPC에서 생산하는 예측결과의 자료형식이 제각각이었다. 예측 기간, 예측 요소, 격자 간격 등이 다르다보니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전 세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개별 GPC 자료를 표준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면서 장기에보선도센터가 설립된 것이다.

2005년 제주에서 개최된 WMO GPC 회의에서 처음으로 장기에보선도센터를 설립하지는 제안이 있었다. 이후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된 WMO 기본체계위원회(CBS, Commission for Basic Systems) 특별회의에서 GPC-Seoul 공식 승인 및 선도센터 운영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 부산에서 개최된 WMO/KMA GPC 워크숍에서 선도센터의 기능이 확립되고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최종적으로 2009년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 제14차 WMO 기본체계위원회 총회에서 WMO의 장기에보선도센터로 공식 인준을 받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장기에보선도센터는 전 세계 12개 GPC가 생산한 장기에측자료를 수집·표준화하여 WMO

회원국에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인 자료 교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중모델앙상블 예측자료를 생산, 전 세계 기후예측자료를 표준화하고 MME 예측기술 축적을 통한 첨단 예측기술을 개발하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선진 기후예측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현재 장기예보선도센터는 홈페이지(www.wmolc.org)를 통해 97개국 460명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개도국 초청연수과정이나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의 지역기후포럼을 통해 개도국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스위스에서 개최된 WMO CCI(기후위원회, Commission for Climate)-CBS 전문가 회의에서 GSCU(Global Seasonal Climate Updates, WMO가 추진 중인 전 세계 장기전망 계간지) 발간을 위한 기본 예측자료로 장기예보선도센터 자료를 이용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2011년 9월과 2012년 2월에는 GSCU 시험 발간을 지원하였다. 올 6월에는 GSCU 발간을 위한 테스크팀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GSCU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장기예보선도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공 방법 개선과 MME 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수행 중이다.



기후변화로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산업 및 경제의 기후변화 의존도도 증가하여 기후예측정보의 가치는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기후예측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예측정보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기상청이 WMO 장기예보선도센터를 통해 기후예측정보 교환 및 기술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개도국 등 기후예측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 고품질의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자연재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일임에도 분명하다. 또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개발로 기상재해 예방 및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전 세계에도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다.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술】

- 다중모델앙상블(Multi-Model Ensemble, MME) : 여러 모델의 예측자료를 수집, 분석, 조합하여 예측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예측기법
- 다중모델앙상블 예측은 개별 단일예측모델 결과보다 예측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 다중모델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장기예측성 향상이 기대됨.

제4차 JCOMM 총회 개최(5.23~31)

조석준 청장은 5월 23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WMO-IOC 해양학 및 해양기상합동기술위원회(JCOMM)' 제4차 총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54개국의 해양기상분야 전문가 2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해양관련 재해 및 해양기상 서비스 등에 대한 자국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보성글로벌표준기상관측소 종합기상관측탑 기공식(5.2)

5월 2일 국내 최초의 국제적 규모인 300m 높이 종합기상관측탑 기공식을 전남 보성에서 가졌다.

한-몽골 기상협력회의(4.30~5.4)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몽골기상청에서 제5차 한-몽골 기상협력회의를 가지고, 황사감시 및 공동연구, 수치예보 기술 지원 등 기상협력을 추진했다.





2012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5.15)

위험기상의 선제적 대응과 이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5월 15일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기상학계 원로 초청 간담회(5.18)

5월 1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상학계 원로를 초청하여 기상청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 기상-강우레이더 융합행정 포럼(5.24)

5월 24일 레이더정보의 가치창출과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2012 기상-강우레이더 융합행정 포럼'을 공군 회관에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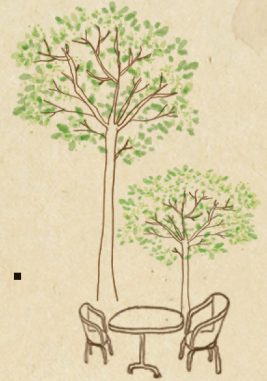
한국-홍콩기상청 MoU 체결(5.30)

5월 30일 홍콩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치예보, 항공기상,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선진기상기술을 교류하기로 했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운 Quiz 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1. 노령산맥의 큰 줄기가 마지막으로 솟아나 다도해로 이어지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으로 예로부터 영혼이 거쳐 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이라 불리었던 산은?
① 유달산 ② 한라산 ③ 유명산 ④ 백두산
2.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의 한 종류로서, 290~320 nm에 해당하며, 주로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 현상, 화상 반응과 연관되어 피부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은?
① 자외선 A ② 자외선 B ③ 자외선 C ④ 자외선 D
3.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서 새로운 정보와 사업 등의 소식을 전하고 공람하기 위해 날마다 발행하던 정부소식지는?
① 관청 ② 기상연감 ③ 하늘사랑 ④ 관보



지난 달 퀴즈 정답: 1. ② 2. ② 3. ②

지난 달 퀴즈 정답자: 1. 장정애(광주) 2. 방주영(경북) 3. 정경석(대전) 4. 임희순(부산) 5. 송영숙(경기)



퀴즈 정답은

6월 25일까지 전자메일(parkmj@kma.g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 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사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공모주제

- > 호국영령에 대한 고마움
- > 국가안보 및 국민안보의식의 중요성
- > 6·25전쟁의 참상과 교훈
- > 안보 현장체험·교육 소감
- > 비상사(전쟁 등) 안전한 국민행동요령

응모·작품규격

-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팀은 5인 이내)
- > 3분 이내
다큐, CF, 유적송 등 다양한 동영상 작품
(100MB 이내 / 640×480픽셀 이상 / WMV/파일)
- * 캡코더, 스마트폰 등 어떠한 매체로 제작하여도 응모 가능

접수기간 및 일정

- > 접수기간: 2012년 6월1일~30일 (1개월)
- > 당선작 발표: 2012년 7월 중

접수방법

- > 트트안전 대한민국 홈페이지
(<http://snskorea.go.kr>) 온라인 접수
- > '안보 UCC 동영상 공모전' 메뉴에서 응모자원에서 작성
(다수 작품 접수 시 개별 작성) 제출
동영상 파일은 게시판에 등록

시상내용

구분	작품	내역
대 상	1	상금 15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상
최우수상	2	상금 각 1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상
우 수 상	4	상품 각 디지털캠코더 1대(50만원 상당)
장 려 상	10	상품 각 디지털카메라 1대(20만원 상당)

유의사항

- > 제출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입상된 작품의 저작권 등 권리는 행정안전부에 귀속됩니다.
- > 제출작품이 타 공모전 수상 및 모방, 선정성 및 폭력성이 포함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후에도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제출된 작품은 초상권 및 저작권 분쟁이 없는 내용이어야 하며, 분쟁 발생시 응모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내·문의

- > 홈페이지: <http://snskorea.go.kr> 트트안전 대한민국
- > 전 화: 행정안전부 자원관리과 02-2100-2808

우리함께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요!

에너지 절약의 행복한 동참 '쿨맨시'

온 국민이 쿨맨시를 착용하여 전국의 실내 냉방 온도를 2℃ 낮이게 된다면 연간 39만 TOE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냉난방에 의해 배출되는 CO₂량은 건물 전체의 45%나 차지하므로, 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간 19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약 7억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